**제4차 총회**

* **개요**

|  |  |  |
| --- | --- | --- |
| 기간 | 2002-09-10 ~ 2002-09-11 | |
| 장소 | 러시아 연방 > 하바롭스크변경주, 하바롭스크시 | |
| 주관 | 러시아 연방 > 하바롭스크변경주 | |
| 참가 | 6개국 30개 자치단체 |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산둥성, 닝샤후이족자치구 |
| 일본국 |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함경북도, 나선특급시 |
| 몽골국 | 셀렌그아이막 |
| 러시아 연방 | 브랴티야공화국,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 캄차카변경주, 사할린주, 자바이칼변경주, 우스찌-오르진스크 부리야트 자치구(現브랴티야공화국)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합운영 및 회의경비 부담제도 개정**  •총회 개최단체에서 차기 총회 시까지 역임하는 의장(사무국)제도를 차기 총회 개최 자치단체장이  •차기 총회 개최 시까지 2년간 담임토록 변경  •총회 및 실무위원회 회비 개최경비는 개최단체에서 1/2, 참가단체가 1/2을 각각 분담 |  | |  | | | |  | **▷회원단체가 실시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연합의 인정제도 논의**  **▷경상북도에 상설사무국 설치 안에 대하여는 ‘상설사무국 설치 공동실무기구'를 구성하여 안을  마련하여 차기 총회에서 결정** |  | |  | | | | **▷분과위원회 별 활동 상황 보고**  **▷2004년 총회를 흑룡강성에서 개최키로 결정** | | | | |

* **하바롭스크 선언**

2002년 9월 11일 하바롭스크시(러시아연방)에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4차 총회가 진행되었다.

동북아시아의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등 6개국 29개 지역을 망라하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에서 다채로운 문화, 과학 및 경제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지역간의 협력 추진에 기여한다.

하바롭스크 회의는 동북아시아의 29개 지역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함으로써 높은 대표율이 특징적이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는 새헌장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 러시아연방의 새 지역자치단체들의 입회문제와 아울러 세계경제의 지구화와 관련된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간의 경제협력의 전망과 기본 발전방침이 검토·논의되었다.

총회에서 진행된 토론과정에 지역단체 참석자들은 지역간 경제, 정치, 문화교류의 경험을 교환했으며 지역수준에서의 국가간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제4차 총회 참가자들은 동북아시아의 광범위한 제 문제들을 논의한 끝에 이하와 같은 문제들에서 의견의 일치를 달성했다.

1.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분과위위원회들의 사업을 그 기능과 과제에 합당하며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환경보호, 자연재해방지와 문화적, 인문적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역간ㆍ국가간 정보의 교환을 위한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 향후의 총회와 정기회의의 효과적 소집을 위해 차기 총회 개최국에서 사무국의 2년간 소재 순차와 조건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3. 연합회의는 동북아지역차치단체연합 상설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상설 사무국의 설치조건 (업무, 활동기구, 재정할당)을 연구하기 위해 효고현, 토야마현(일본), 경상북도ㆍ부산광역시(대한민국), 헤이룽장성(중국), 하바롭스크주(러시아)가 공동하여 실무기관을 설치한다.

4. 연합에서 채택하는 결정들과 연합활동을 사회계에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연합과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연계를 보장할 것을 사무국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5. 차기 연합 총회의 소집과 관련된 일부 경비분담의 기본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6. 일부 경비분담제도의 시범적 도입을 위해 1개월 기간으로 2003년 연합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위한 경비 견적서 초안 작성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7. 토의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과 건의를 고려하여 연합의 새 헌장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8. 셀렝그아이막(몽골), 우스찌-오르딘스크 부리야트 자치구(러시아), 함경북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연합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였다.

9. 연합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북아시아의 경제문제와 동북아전지역의 하부구조 발전을 위한 지역간 프로젝트를 차기총회의 토의에 붙이기로 하였다.

10. 동북아시아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과의 과학기술교류의 활성화를 발기해 과학, 기술 및 교육의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11. 총회 참석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5차 연합 총회를 2004년 헤이룽장성(중화인민공화국)에서 소집하기로 하였다.